

주제회의
장애

기후위기와 시설사회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자본주의 성장체제가 초래한 재난, 기후위기와 시설사회

기후위기를 초래한 자본주의 체제의 ‘성장의 지속화’는 곧 ‘시설사회의 지속화’와 연결된다. 장애인의 몸의 차이와 속도는 비생산적이며 무능하다고 차별 받아왔으며, 이들의 삶은 존엄을 박탈당하며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왔다. 지속 가능한 성장만을 위한 개발주의는 장애인의 삶의 지속성을 박탈하며 유지되어 왔다. 권리를 박탈당하고, 삶을 유예당하며, 감금되어 왔던, 시설사회로 내몰린 사람들. 밀려난 몸들이 놓여진 자리는 차별과 반인권의 현주소다. 기후위기의 재난은 이 자리에서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확인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현실은 폭력앞에 기후위기와 시설사회가 만든 재난이다. 시설사회에서 정치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로 기후 위기를 말하고 싸워야 한다. 이때 사회가 장애인의 몸의 차이와 속도에 주목하여 사회 질서가 변화해야 한다는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은 기후정의운동¹⁾의 방향과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어떻게 더 만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성장에 반대하는 지속가능한 돌보는 삶

돌봄정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투쟁이다. 자본주의 생산 구조에서 돌봄/재생산 노동은 생산을 위해 동원되는 하위의 노동으로 취급받았다. 특히 돌봄받는 사람을 일방적 수혜자로 위치시키며,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시민 간의 돌봄, 인간과 비인간 간의 돌봄을 비가시화 시켰다. 성장은 ‘있는 그대로’ ‘나답게’ 살아가는 삶을 존엄하게 인정하기 보다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하도록 부추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능력주의와 만난 성장은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y에 기반해 돌봄의 윤리와 정의를 다시 쓰는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상품화되고 젠더화된 돌봄노동에 대한 비판과 대안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방식대로 역사를 일구고 살아가는 장애인의 현재의 모습은 왜 성장과 생산으로 인식되지 않는가? 성장을 멈추고 삶을 돌보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장애여성 운동이 제기한 돌봄의 윤리와 정의 문제는 어떤 고민을 던져주고 있을까? 장애인 차별 철폐 운동과 장애여성 운동이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비인간화된 삶에 맞서는 투쟁이며 동시에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에 대해 질문하는 운동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인간, 비인간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체 간의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돌봄이 필요한 지속가능성에 따라 공평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난잡한 돌봄의 윤리라고 부른다. 난잡함이란 더 많은 돌봄을 실천하고 또 현재 기준에서는 실험적이고 확장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난잡하다’는 것은 또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돌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중략) 친족과 혈연이나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땅, 물, 동물들로부터 확장해야 한다. ”(Chatzidakis, and Andreas. "돌봄 선언."(2021))

1) 기후정의운동과 기후정의동맹은 기후위기를 지속가능한 체제 관리와 안전한 지구라는 관리 관점에서 바라보는 근대적 인간 중심주의와 그와 한 뿌리로서 관료주의적 사고를 비판하며, 그런 탈정치와 반(反)정치의 사고틀에서 벗어나, 지구를 파괴하며 끝없이 팽창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멈춰 세우기 위한 반자본주의 운동으로서 함께 자본에 저항하는 생명들의 정치적 생태적 동맹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다(채효정, 기후정의를 위한 기후정의 포럼 자료집).

기후정의를 향한 저항과 연대의 정치

‘기후취약 계층’으로 분류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갇히지 않기 위해, 피해의 경험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취약한 피해자로 고정화되고 대상화 되지 않기 위해 피해의 경험을 어떻게 주체로서 말할 것인가? 더불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피해자로서 또 다른 피해자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할까? 다시 시설사회의 문제의식과 연결하여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연대로 생산과 성장, 피해와 생존을 위한 비용과 지원을 다시 정의해 간다면, 피해자가 아닌 저항과 연대의 근거로서 우리의 삶과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